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부채를 선물하니 호된 더위와 나쁜 기운 날려 버리게”

선물의 문화사

김봉기 지음

“어떤 임금은 신하들과 술자리를 마련하고 양껏 마신 뒤 떠나없이 한데 어울려 한림별곡 같은 인기곡들을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다. (중략) 아쉽게도 늘 그런 자리를 만들지 못하거나 성격상 함께 즐기지 못하는 임금이라면, 혹은 신하들을 격려하고 포상하는 차원에서 술을 대접하고 싶었던 임금이라면, 그들에게 술을 하사하면서 선물로 영무배 같은 것을 슬쩍 키워서 내려주었을 것이다. 예종은 승정원 관리들에게 술과 영무배를 내리면서 ‘모름지기 마음껏 마시고 취하라’고 한 바 있다.”(본문 중에서)

영무배(鸞鳴杯)는 영무새 부리 모양의 술잔을 말한다. 사대부들 사이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조선시대에는 뇌물로 사용됐다. 영무배가 최치원 시에도 등장하는데, 지식인 사이에서는 술을 연상하는 기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무배는 고려 원종 때 몽골의 사신 속리대(東里大)와 고려 태자 사이에 오해가 생기자, 태손이 몽



고 사신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영무전과 백은(白銀) 30근을 뇌물로 바쳤다고 한다. 이처럼 영무배는 오랜 옛날부터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명성을 쌓아왔다.

선물은 하나의 물건을 넘어 그것에 담긴 마음과 행위까지를 포괄한다.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선물로 가득 차 있다. 나의 능력 외에도 누군가의 “배려와 애정”으로 꾸러지기 때문이다.

조선의 선물 문화를 다룬 책이 발간됐다. 김봉기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펴낸 ‘선물의 문화사’는 조선을 이끈 19가지 선물을 조명한다. 책에 등장하는 19가지 선물은 대부분 경제적 특성을 메우는 데서 나아가 시대에 적합한 유행 아이템이었다.

저자는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일기를 보면 선물이 일상적으로 오갔다고 본다. 새해가 되면 왕은 신하들에게 책력을 하사하고, 신하들은 그것을 주변 이들에게 나눠주었다. 18세기 말에는 1만6000~1만8000축을 발간할 정도로 양이 상당했다. 그러나 대도시리아 새해 책력을 구할 수 있었지 시골은 거의 구하기가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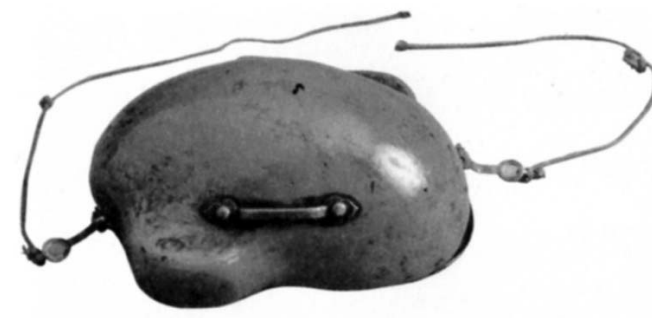


대나무로 만든 접이식 부채 합죽선.

“책력을 보면서 제사 지내기에 적절하지 여부를 살피고 아름다운 절기를 접치는 것은 바로 책력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책력’을 지금은 달력으로 번역하지만, 단언에 ‘책(冊)’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더위를 날려버리는 단오부채도 귀한 선물이었다. 단오를 즈음해 선물로 주고받은 것 중 최고의 인기 품목이 바로 부채였다. 단오선, 절선으로 불리는 부채에는 더위를 무사히 견뎌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왕이 신하에게 부채를 하사한 것처럼 고을 관아 또한 아랫사람들에게 단오선을 선물했다는 기록



앵무조개로 만든 술잔. 조선의 문신 배삼익이 1587년 명나라에서 선물로 받았다.

이 나온다. 한두 개가 아닌 꽤 많은 양을 선물한 것으로 보아 부채의 인기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옛사람들은 부채를 통해서 한여름의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 더위를 이겨내어 한여름을 보내라는 뜻을 담았다. 어쩌면 상대당의 절의에 대한 존경을 담았을 수도 있고, 선정을 펼치라는 소망을 담았을 수도 있다.”

문사들은 종이를 선물로 받으면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특히 고려 이후 종이의 수요는 꾸준히 늘었는데 유학의 시대인 조선에 들어서면 국가문제로 대두될 정도였다. 조선의 종이는 품질이 우수해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중국은 공물로 종이를

요구했고 1407년(태종7)에는 순백지 8000장을 보낸 기록이 있다.

이처럼 책에는 조선의 선물이 다채롭게 꾸러져 있다. 번역 한시와 간찰(편지) 등도 읽는 맛과 보는 맛을 더해준다. 영무배와 울곡벼루 등 실물 도판은 당대 선물의 면모를 파악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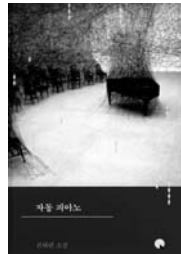
“분명한 것은 사심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아야 비로소 우리 사회가 조화로운 공동체로 유지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건강한 수확은 상당 부분 선물의 몫이다.”

〈느낌이 있는 책·1만5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동 피아노

천희란 지음



2015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하고 2017년 ‘다섯 개의 프렐류드, 그리고 푸가’로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천희란 작가. 오늘날의 한국문학을 이끌어 갈 젊은 작가 중 한명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자동 피아노’를 펴냈다. 창비에서 발간하는 ‘소설Q’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자신을 구하고 싶은 절실한 이들을 위한 단 하나의 소설’이다.

작품은 자신에 갇힌 인물의 끝없이 번열하는 목소리가 죽음을 음악처럼 연주하는 작품으로, 죽음에 대한 욕망과 충동, 이에 대한 반발로 되살아나는 삶에 대한 열망을 그려낸다. 모두 스물한개의 각 장 제목은 죽음적으로 떠올린 피아노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독자에게 열려 있다.

주인공 나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험거운 싸움이 전개될 뿐이다. 소설은 첫 장부터 예사롭지 않다. “나는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설득하려는 게 아니다.” 위 인용구처럼 소설은 독자를 설득하지 않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죽음의 연주를 끈질기게 들려줄 뿐이다. 각각의 장에 실린 피아노곡은 소설이 그려내는 죽음의 이미지와 결부돼 독자로 하여금 삶에 대한 사유를 하게 한다.

작가는 “나의 글쓰기가 벗어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인 아니라, 혹독한 삶 속에서 내가 나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쓰고 있다는 것. 내게도 오랫동안 소진되지 않고 쓰고 싶다는 작가로서의 욕망이 있다는 것. 얼어붙은 자기만의 세계를 단숨에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걸어볼 것이다”고 말했다.

〈창비·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 엘리저 스텐버그 지음



선적적 맹인은 꿈에서 무엇을 볼까? 절단 수술을 받은 다리가 가려울 땀 어디를 긁어야 할까? 우리 뇌는 고작 1.4kg으로 하루 섭취 열량의 20%를 소모한다. 뇌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를 구축하고 지켜 내는지 알아가는 과정은 신비롭다. 뇌에는 과학을 넘어 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이 결합된다.

축망받는 젊은 신경과학자가 들려주는 뇌 이야기의 발간됐다. 예일대 예일-뉴헤이븐병원 상주의인 엘리저 J. 스텐버그가 펴낸 ‘뇌가 지어낸 모든 세계’는 뇌과학의 방대한 연구를 담으려는 야심찬 결과물이다. 책은 ‘네이처’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주목하고 세계적 신경과학자 라마찬드란이 “독보적이다! 뇌의 모든 영역을 한 권에 담은 책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상찬했다.

각 장은 진로실에 찾아온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기상천외한 상담 사례로 시작된다. 지난 100년간 뇌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은 한 기억 상실증 환자가 계기가 됐다. 인간 뇌를 대신할 어떤 연구 대상도 찾지 못했지만, 역설적이게도 환자들의 상처 입은 뇌를 통해 온전한 뇌의 청사진을 가능할 수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뇌는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마다 몸의 무수한 감각을 통해 충격을 받는다. 이때 뇌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카메라 영상과 오디오 녹음을 수집하고 편집한다. 뇌는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과 인식을 합리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이를 통해 삶의 경험을 쌓고 감정이나 기분을 느끼며 ‘자아’를 만들고 지켜낸다.

〈다산북스·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버드 새벽 4시 반

웨이슈잉 지음



1636년 미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소박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는 현재까지 8명의 미국 대통령, 7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자리잡았다. 과연 하버드, 이곳에서는 어떤 청년들이 무엇을 수확하는 것일까.

‘하버드 새벽 4시 반’은 출판기획자인 저자 웨이슈잉이 중국 CCTV의 기획 다큐멘터리 ‘세계유명대학: 하버드 편’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지금까지 타고난 능력을 가진 선택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편견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노력하고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버드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 새벽 4시 반, 하버드의 도서관은 빈자리 하나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생식당, 복도, 교실 등 저마다의 공부로 바쁜 모습이다. 저자는 꿈을 꾸기에도 벅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버드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석하고 하버드식 성공법을 알려준다. 또 성공하기 힘들다며 미리 포기하고 주어진 환경을 탓하는 것이 한낱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냉철하게 꼬집고 있다.

책은 하버드와 그 학생들의 특별함을 10가지로 정리했다. 노력, 자신감, 열정, 행동력, 배움 등의 키워드를 통해 20대 청년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나침반을 제시한다. 아울러 졸업생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버드 강의 중에 소개된 여러 교훈적인 이야기들과 격언들을 수록했다.

〈라이스메이커·1만4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거래된 정의

이명선·박상규·박성철 지음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졌던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권력과의 거래를 통해 누군가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말았다. 기자들과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설립은 지난 3년간 취재를 통해 사법 농단의 궤적과 민낯을 기록했다.

‘거래된 정의’는 약 70여명의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저자 박성철 변호사, 이명선 기자, 박상규 기사는 피해자를 만나 국가와 사법부가 어떻게 보통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지 보여준다. 또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살펴본다.

책은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양승태의 법관 시절 1975~2004’에서는 청년 법관 양승태가 일찌감치 정권에 협조하는 판결을 내리며 승승장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간접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보여준다. 2부 ‘양승태의 대법관-대법원장 시절 2005~2017’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KTX 승무원 해고까지 사법부 특조단의 공개 문건을 통해 드러난 ‘재판 거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도입부에는 ‘취재 노트’를, 글 말미에는 해당 사건의 ‘일지’를 수록했다. 독자들이 취재와 사건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간에 변호사 박성철의 글을 실어 ‘국가 범죄’와 ‘소셜시효’ 등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보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이 어떻게 함께 훼손된 사법 정의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살펴본다. 또 사지가 주용성, 박유빈과 저자들이 찍은 사법 피해자들의 사진을 책 곳곳에 배치했다.

〈후마니타스·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Wood Builders and Hi Hyun, featuring a large house and a grid of smaller house styles labeled Modern, Classic, and Mediterranean Sea. Text includes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and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